

9

2003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어포니아 · 고린도전서 · 사사가
구역예배
남선구역예배

충현교회 출판부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여호수아 · 고린도전서 · 사사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서둘러 온 가을



아침에 일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더위를 몰아내려 밤새 열어 놓았던 창 틈으로
어느 새 찬바람이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마음씨 고운 가을은
무더위에 지쳐 겨를 없던 우릴 위해
몹시 서둘러 달려온 듯 합니다.

여름날 열기 너무 드세어
가을날 청량함은 선뜻 기대도 못했는데
이리도 일찍 찾아와 준 가을 전령 앞에서
고맙고 기쁜 마음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 너머 서 있는 가을 전령을 반기는 사이
다시 한 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서둘러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쓰러지지 않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분(고전 10:13)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지치지 않게 적절한 때 서둘러
큰 안위를 얻게 하시는 그 분(히 6:18)

그 모든 은혜가 우릴 위해 서둘러 오시는
하나님의 전령임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서둘러 오시는 주님께
우리도 서둘러 달려가 그 발에 입맞추려 합니다.

고린도 전서 서론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요한 요충지였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곳이었다. 그러나 부유함이 있는 곳에는 늘 타락과 부패가 동반했던 것처럼, 고린도 역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는 거대한 사원이 있었고, 그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할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문란한 성적 타락이 있었으며, 거기에 참여하는 창녀만 해도 일 천 명이 족히 넘었다고 한다. 이만 하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동과 다름 바 없는 그 도시에도 전도자 바울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출발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행 18장).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 놓여진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책망과 권고를 들었다. 이런 배경을 먼저 알고 고린도전서를 읽도록 하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나 바울은 그곳을 일컬어 '하나님의 교회' (1:2)라고 거침없이 부른다. 이 땅에서 완전무결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당연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인하여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본래의 거룩한 면모를 지닐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제시하는 해법(解法)을 신중하게 읽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하여 복음의 더 큰 원리를 항상 설명하기 때문이다. 실로 바울은 거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까지 연결시켜 거기에서 해결을 본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단순히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해법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와 복음의 원리를 파악하고 깨닫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를 도전하고 있는 현대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처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와 복음서의 연관성도 살펴보면서 읽도록 하자.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인격에 대한 언급들도 있는데, 이런 기록들도 유념해서 읽도록 하자. 그리스도는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에 중점을 두며 말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1:30, 8:6, 15:45 등등). 즉,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인격이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인격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자.

내용분해

I. 문안과 감사(1:1-9)

II. 분쟁문제(1:10-4:21)

- ① 일치에 대한 강조(1:10-17)
- ② 십자가의 도(1:18-31)
- ③ 성령의 지혜로 가르치는 바울(2:1-16)
- ④ 지혜로운 건축자(3:1-23)
- 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4:1-13)

III. 도덕문제(5:1-7:40)

- ① 음행하는 자를 쫓아 내라(5:1-13)
- ②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6:1-8)
- ③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6:9-20)
- ④ 기본적인 결혼의 진리(7:1-40)

IV.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8:1-10:33)

- 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유(8:1-13)
- ②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바울(9:1-27)
- ③ 우상숭배를 피하라(10:1-22)
- ④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10:23-10:31)

V. 예배와 모임에 대한 문제(11:1-35)

- ① 너울을 쓰는 유전에 대한 교훈(11:1-16)
- ② 주의 만찬에 관한 교훈(11:17-35)

VI.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12:1-14:40)

- ① 은사의 목적과 다양성(12:1-11)
- ② 사랑의 진리(13:1-13)
- ③ 은사와 질서(14:1-40)

VII. 부활문제(15:1-58)

- ① 부활의 복음(15:1-11)
- ② 부활의 첫 열매(15:12-34)
- ③ 부활의 영광(15:35-49)
- ④ 최후의 승리(15:50-58)

VIII. 마지막 권면과 문안(16:1-24)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성취됩니다. 본 장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복되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될 땅을 또다시 언급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장래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케 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약속과 맹세는 거짓 되고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 치의 틀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의 종 됨에서 자유케 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죄와 패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요단 서편의 땅을 제비뽑아 분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 별로 분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후에 땅 분배와 관련하여 불평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채택한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은 땅 분배 문제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의무는 오직 충성이며, 그에 따른 보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두 지파가 공동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보상을 탐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온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6절부터 15절 까지에서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약속 받은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넓고 아름다운 정복 된 평야 지대를 요구하지 않고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미 정복 된 땅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는 르우벤 지파였지만,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 지파가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권을 인정받았고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넓고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과, 동쪽으로는 사해(死海)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에서 시작하여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압느엘을 연결하는 지역과, 서쪽으로는 대해, 곧 지중해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방 지역에서 38개 성읍, 평지에서 40개 성읍, 광야지역에서 6개 성읍 등 모두 120여 개의 성읍과 그 주변 촌락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렸으면서도 가나안의 여부스 거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부스 거민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찌르는 가시와 울무가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큰 은혜를 입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와 더러움을 겸하여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새 언약 백성답게 경건히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차자(次子)였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예언 성취입니다. 야곱은 임종시에 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큰 자가 되며 뛰어나게 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동서로는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였습니다. 남쪽 경계는 유다 지파의 윗편이었고,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는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곳은 가나안의 중앙 지대로서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과 모세의 축복대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게셀 족속을 자신들의 유익과 편의를 위하여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거민을 철저히 몰아내고 어떠한 형태의 화친도 맺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은총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실수를 거울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순종으로 치닫는 옛 사람을 벗어나 버리고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므낏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남은 반 지파만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므낏세 반 지파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잇사갈, 스블론, 아셀 지파와 경계 지역에 위치한 뱌 스안, 므깃도, 돌을 잇는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므낏세 지파도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두려움에 짓눌려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 위에 굳게 서도록 힘쓰십시오.

므낏세 지파의 또 다른 잘못은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굉장히 번성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분배받은 땅으로서는 너무 비좁아 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많은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산지의 삼림을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는 그곳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여 삼림 개척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여호수아의 지시에 불만을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입니다. 신앙의 길도 편하고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신앙의 길이 조금만 험해도 불평하며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애물 앞에서 겁을 먹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담대하고 정결한 믿음을 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 작업을 잠시 멈추고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기업 분배 작업을 중단하고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유는 일곱 지파의 소극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까지도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여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만족하였으며 거기에 안주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부인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합니다. 우리도 늘 깨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지 않으면 나태와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결국 각 지파에서 선정된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의 지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분할지의 지도를 그려 여호수아에게 나아오자 여호수아는 그것을 토대로 나머지 지파의 기업 분배를 완수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약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신앙에 입각한 지체와 지도를 그려온 각 지파 대표들의 순종 덕택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아갈 때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끝마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덤낫세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하여 받은 뒤에 그 성읍을 중건하고 죽을 때까지 그 곳에 거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비록 약속의 성취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비록 이스라엘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각 지파의 가족 수에 따라 정확하게 기업을 분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날마다 연합함으로, 혹은 악한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여기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격이나 삶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그 유업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피의 보수자로부터 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피의 보수법(창 9:6; 출 21:22-24)에 따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적의도 없이 부지중에 오살(誤殺)한 자까지 무조건 죽이는 것은 가혹한 처사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피의 복수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설정하고, 우발적인 살인자가 피의 보수자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 전역에 걸쳐 골고루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위치하였고 거기에 이르는 길도 넓고 평탄하게 잘 닦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재빨리 도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에 피하여 성읍 장로와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허물을 다 고해야 했듯이(4,6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다 고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채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도피성을 설정하고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분배함으로써 가나안 땅 분배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형제들의 기업 중에서 각 가계별로 제비뽑아 48성읍을 그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48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펼치며 공의를 실행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기 위해 부르신 신약 시대의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내를 뿜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45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가나안 땅 분배가 종결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노고를 치하한 후, 많은 전리품과 함께 그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 동안 두 지파 반은 가족을 뒤로한 채 요단을 건너와 5년여 세월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단을 건너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용사들에게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요단 서편 강가에 이르러 그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사실을 기념하고 자신들도 요단 서편의 지파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전 협의 없이 행해진 일이었으므로 요단 서편 지파들의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이를 우상 숭배 행위로 오해하여 심히 분노하며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진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방백들에 의해 오해가 풀리고 두 지파 반의 충정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간에 더 두터운 우의와 단결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 외의 다른 어떤 신도 섬기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렬한 신앙을 보여 줍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잖은 교훈을 줍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품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과 다음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연설과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면서, 여호수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는 본 장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음과 여호와께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취하여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변함없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킬 때에는 축복을 받을 것임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임무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과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길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고별 연설을 하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세겜은 종교적인 의의가 매우 깊은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모든 우상을 묻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옛날 조상들의 신앙적 결단의 장소였던 세겜에서 설교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상을 더 멀리하는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양단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와 그 가정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15절). 이러한 그의 선언은 이미 수십 년 간 젊은 시절부터 갖고 있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적 결단은 다수의 군중심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좇아서는 안됩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좇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좇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주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지체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좇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특정 지도자들에게 집착하며 그들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13절)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분파주의와 분쟁을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세례 또한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오직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에서부터 분열이 생김을 지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고합니다.

성도들이 인간의 능력이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앞세울 때, 파당을 짓게 되고 분쟁과 분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지체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일치가 이루어지며,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인간의 지혜와는 비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사 감추어 두신 것이며, 죄악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역사성'과 '비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순결하며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고 영적 통찰력이 겸비된 신령한 자일지라도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안은 금새 희미해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깊이가 성숙도를 더해 갈수록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각각 특정 사역자를 추종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추종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추종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을 베드로를 추종했습니다(4절, 22절). 바울은 그들의 이런 잘못을 엄히 책망하며, 교회 안에서는 절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21절).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사랑까지 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사역자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행동,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을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등 교회 안에서 과당을 짓는 행동을 금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역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임명을 받아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5-9절).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에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7절). 즉, 교회에 유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21-23절).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교회의 일꾼들을 합당하게 존경하고 사랑하되 그들을 인간적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복음의 사역자들을 과대 평가하여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복음의 사역자들을 과소 평가하여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 역시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1절). 복음의 사역자들은 매우 존귀한 일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들의 직분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시기 때문입니다(4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5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은 중대한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6절).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복음의 사역자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이상으로 그들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기호(嗜好)나 판단을 따라 사역자들을 대한다면, 어떤 한 사역자에게 집착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신실하고 유능한 다른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의 사역자들을 우리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派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淫行)의 문제도 함께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계속 침묵을 지켰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관용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1,2절).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권징(勸懲)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먼저, 범죄한 당사자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권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5절). 즉, 범죄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권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징은 교회 공동체를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6-8절). 왜냐하면 죄는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유월절 식사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거룩과 순결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바울의 말인즉, 유월절 희생양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떡을 함께 먹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요 6:55) 영생을 얻은 성도는 반드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7,8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거룩과 순결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의 동기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거룩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과 순결한 삶에 대한 동기와 능력은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인 상호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엄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2절). 이 세상은 아무리 지혜로운 듯 보여도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며 장차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교인 상호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요 책망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건하고 지혜로우며 성숙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5절).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속는 편을 택하는 한이 있어도 교인 상호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7절).

한편,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13절 하). 둘째, 우리의 몸은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14절). 셋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15절). 넷째,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18절). 다섯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20절). 성적 타락이 극심한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 6:18,19 참고).

기도 제목 / 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독신 생활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1,26,32절). 바울은 말합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2절). 즉, 끝까지 절제하고 순결하게 살수만 있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마땅히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9절). 그러므로 혼인을 할 것인지 독신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려는 선한 결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또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며 살 수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7절). 이 두 가지가 없는데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나 자유롭고 편리한 삶을 위하여 독신을 결정하는 현대의 풍조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한편, 29절로부터 31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29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30절).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지나가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골 3:2).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가정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이 기록될 당시 고린도 지역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육류는 이방 신전(神殿)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육류를 구입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8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보혈뿐이며 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물에 대하여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딤후 4:4,5).

그러나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합법적인 자유도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연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9절). 즉, 너희는 지식이 있어서 우상 제물에 대하여 자유를 누리지만 너희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고서 연약한 자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상 제물을 먹어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2절).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되 연약한 형제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행케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향유하는 데서도 나타나지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데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이런 포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유자였고 사도였으며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12,19절).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부인(自己否認)의 삶'이란 복음 안에서 주어진 모든 자유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권리와 특권까지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4절 이하에서 바울은 육상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승리를 목표로 삼아 달리기ye 집중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와 같은 절제와 집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인즉, 천국의 썩지 않을 면류관을 목표로 삼고 뛰어가는 신앙의 경주(競走)에서 우리도 절제하는 삶과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절제와 집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히 12:1)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기도 제목 / ① 타락과 방종이 범람하는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도 바울은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간음, 하나님을 시험한 일과 원망한 일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런 죄들을 범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했으며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 정도로 악하고 무지하며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과 역사를 보여주어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헛된 자신감을 버리고 겸손히 우리의 부패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12절).

특히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14절)라고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원리적으로 금합니다(20절). 다만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서 먹는 일과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않고 먹는 일은 괜찮다고 말합니다(25-27). 그러면서 바울은 매우 중대한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31절). 즉,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순결한 소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살게 하소서. ② 강기업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의 전반부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함께 예배는 드리되, 머리에 예배포를 쓰도록 명하고 있습니다(2-16절). 이것은 남녀 사이의 우열(優劣)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역시 동등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 순복(順服)하라는 의미이며, 정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찬이 주는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본 장의 후반부는 성찬식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17-34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의 경건함과 신령함을 상실하였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의 바른 모습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죄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음식이며 음료입니다. 따라서 이 살과 피가 주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함으로써 영적 영양분을 풍성하게 섭취하여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십자가가 주는 역동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준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질서와 주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은사의 잘못된 사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분과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 장에서 성도가 받은 은사에 대한 다양성과 통일성(1-11절)이 있으며, 하나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통일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비유로 들어 교회의 유기적 일치를 강조(12-27절)하고, 성도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를 오직 교회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권면(28-31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되 반드시 택한 백성을 통하여 그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은사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은사란 각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각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며, 각자의 고유한 자질과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이 되도록 섬겨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사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할 원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안에서 귀한 직분, 천한 직분, 무시해도 좋은 지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선물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며, 오직 주를 위해 사용케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증거합니다. 본 장에서는 사랑의 필수성(1-3절), 사랑의 다양한 모습(4-7절), 사랑의 영원성과 실천이 필요함(8-13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 교회를 유익하게 할 만한 탁월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인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니,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사랑은 구속사의 노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실천해야 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은사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로서 구속사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실체를 재발견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나누는 사랑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동력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 은사로 요청되는 이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원천(源泉)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은사는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본 장의 전반부(1-25절)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다는 목적 안에서 예언과 방언 두 은사를 실례로 들어 설명하고, 후반부(26-40절)는 이런 은사를 특히 예배에 선하고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11장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교회 안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여성의 자제를 권면하고, 은사에 대한 교훈과 예배의 질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은사는 온 교회에 최고의 덕을 끼치는 은사입니다. 따라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은사의 사용 원리는 교회와 온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심리적인 가치나 주관적인 영적 활동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자기 지위의 상승을 위한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는 다른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병 고침이나 다른 모든 은사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당신은 예수를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제되고 양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와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은사 사용을 통해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기도 제목 / ①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케 하소서. ② '충현선 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초대교회는 당시 현존하던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 장을 통해 부활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장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여 신앙의 토대가 굳건치 못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1-34절), 부활 이후의 성도의 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35-49절), 영생을 위한 성도의 부활이 성도에게 보장하는 최후 승리의 확실성을 각성시키면서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을 권면(50-58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해 직접 목격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 뿐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사건을 부정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의심과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로써 성도들의 산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러하듯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신앙과 산 소망의 근거가 되며 복음 전파의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견지할 뿐 아니라,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며 산 소망이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본 장을 통해서 큰 기근을 당하여 고통받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방법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다(1-4절). 계속해서 본 장은 바울 자신의 목회 계획(5-12절)과, 사랑과 용기라는 신앙생활의 두 기본자세에 대한 권면(13-14절), 고린도 교회의 몇몇 일꾼에 대한 칭찬과 그런 선한 일꾼들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한 권면(15-18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감하는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19-24절)로 본 장은 마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서 많은 이방 교회들이 이 헌금에 동참하였습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구제 연보의 요구는 단순한 구제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곧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 교회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고취시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깨우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 원리인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려 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13절), “사랑으로 행하라”(14절).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고,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소서. ② 전 주일 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정찰 전쟁에서 전반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와는 달리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장은 가나안 정찰 전쟁에서 그나마 성공을 거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의 정찰 전쟁의 성공을 기록하고 있고(1-26절), 가나안 거민들을 거의 제대로 축출치 못한 이스라엘 타 지파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7-36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의 완전 정복과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다시 한번 반성하여 봅시다.

불신앙에 의한 범죄의 모습은 이미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하였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또 후대 왕정 시대의 백성들도 똑같이 실패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가 담이 되어서, 그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보편적이지만 너무나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굳센 믿음과 분명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은 우리를 주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을 주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열 두 지파는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남아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마지막 단계의 정복 과정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징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죄를 뉘우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본 장은 사사 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된 영적 원인(1-10절)과 범죄 순환의 기본 패턴(11-23절)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사 시대를 단지 범죄와 저주의 시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 시대는 징계의 시대인 동시에 연단의 시대였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5:20)라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 속에는 ‘죄를 많이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회개를 권하시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암울했던 시대였으나 오히려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로써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따르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주의 만찬

✠찬송/ 282장(유월절 때가 이르매) ✠본문/ 고전 11:23-29

들어가면서

“나를 기념하라”(눅 22:19).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자주 잊고 살기 때문이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자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자주 반복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도 주의 만찬을 함께 공부하며

주일에 거행될 주의 만찬을 고대하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 ① 고전 11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의 만찬의 의미와 시행 방식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을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 ② 24절: 주의 만찬에서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 ③ 25절: 주의 만찬에서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 ④ 26절: 26절 말씀을 외워보십시오.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주의 만찬」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소박하지만 복된 만찬'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 보십시오.

답)

② '주의 만찬의 핵심 주제'와 '전심으로 집중해야 할 곳'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답)

③ '떡과 잔의 의미'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답)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④ '소망의 미래도 함께 봄'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에서 보게 되는 바 신자의 미래는 어떤 점에서 소망의 미래입니까?

답)

⑤ '주님의 복된 초대' 의 단락을 읽고...

질문) 격월로 거행되는 주의 만찬을 통해 여러분이 얻고 있는 영적인 유익을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점점해 보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만찬은 매우 거룩한 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가장 친밀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만찬에서 우리는 하늘의 복락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선명하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님은 신령하고 복되며 거룩한 이 만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초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솔한 태도로 나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재림에 집중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1. 감사 /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2. 간구 / 주일에 거행되는 주의 만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온 교회가 십자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한글로 된 한글을 한글로 쓴다

..... 15 5 15

수출 [수출] [수출]

81-101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제 2 과 ● ● ● ● ● ● ● ●

이스라엘의 실수

✠ 찬송/ 377장(예수 따라가며) ✠ 본문/ 고전 10:1-13

들어가면서

“룻의 처를 생각하라”(눅 17:32).

인류의 종말에 관하여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룻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광야 같은 인생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배우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 ① 고전 10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본문의 말씀을 말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 ② 1절-4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누렸던 복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 ③ 7절-10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했던 죄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 ④ 5절: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한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 ⑤ 6절, 11-12절: 이스라엘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이스라엘의 실수」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가장 중요한 질문'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세상적인 복을 얻는 방법을 배우려고 성경을 읽는 풍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복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이다.

② '많은 복을 누리기도'와 '넘치도록 부어진 은혜'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아래의 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말해 보십시오.

답)

구름 기둥과 불기둥

홍해를 건너서 건넌

모세의 인도

만나와 생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이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
- ③ '복을 누릴수록 죄악으로 치달아'와 '이스라엘을 빼앗은 우리는 아닌가?'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한 아래의 죄들이 어떤 점에서 시악한 죄였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답)

우상 숭배

부도덕한 생활

불평, 원망

모세와 아론을 비난함

- ④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 보자'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특별히 취악한 죄가 있다면 앞으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를 말해 보십시오.

답)

- ⑤ '넘어질까 조심하라'와 '위엿 것을 생각하라'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답)

1710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3절).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멀리하십시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눈 앞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십시오. 즉,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 주신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1710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1710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1710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1710

1710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1710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1710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1710

기도

1. 감사 /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악의 길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2. 간구 /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사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제 3 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찬송/ 278장(사랑하는 주님 앞에) ※본문/ 롬 12:9

들어가면서

오늘날 여러 종교들이 앞을 다투어
사랑과 평화 그리고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그것의 실현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교회가 너무나 뒤쳐져 있다고 비판합니다.
교회도 다른 종교들처럼 인류의 평화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참 좋은 말이고 참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참된 사랑의 근본적인 요소일까요?
과연 그것이 참된 사랑의 전부일까요?
과연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마음에 품고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을 배우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본문 말씀과 관련 있는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① 요일 5장 1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② 롬 12장 1절: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③ 롬 12장 9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참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④ 계 2장 19,20절: 참된 사랑과 관련하여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참된 사랑이란' 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답)

② '원리를 말하는 바울' 의 단락을 읽고...

질문) 바울이 말하는 바 참된 사랑의 본질과 원리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롬 12:1
답)

③ '참 백성이 누리는 복'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롬

8:37-39

답)

④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와 '겉모양만 그럴듯한 사랑'의 단락을 읽고...

질문) 타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사랑을 비판해 보고 참된 사랑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답)

⑤ '오직 예수'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반성해 보고 느낀 바를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참된 사랑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뚜렷하게 분별합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계 2:19,20). 이 말씀을 보건데, 두아디라 교회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요 참된 사랑입니다!

1. 감사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우리로 하여금 거짓 없는 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을 서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제 4과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찬송/ 493장(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본문/ 창 5:24

들어가면서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시 73:12,13).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가 문득 느꼈던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헛된 일입니까?

오늘은 에녹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이며,

또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배우겠습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을 우선 살펴보고, 유다서 14,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① 창 5장 전체: 에녹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② 창 5장 22절: 에녹은 언제부터, 또 얼마나 오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③ 창 5장 23절: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받은 복을 하나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④ 창 5장 23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히 11:5,6

④ 유다서 14, 15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 ① '가인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답)

- ② '에녹과 그의 후손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에녹의 일생을 보면서 가장 크게 도전 받은 것을 말해 보십시오. 창
5:21-24, 유다서 14:15절
답)

③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와 '동행의 비결' 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말해 보십시오

답)

④ '동행의 행복한 결말' 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결말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답)

⑤ '동행의 행복한 결말'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관련하여 새로운 결심을 한 것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무아무개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준행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성령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이고 그 결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입증해 줍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바 된 에녹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에녹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1. 감사 / 이전에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가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지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읽음

출현의 언더 · 2003년 9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언더 : 안지원(1, 2월), 장충신(3, 14월), 여태복(15-22월)

양재웅(23-30월) 목사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발행처 / 순천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662-8200) (예배동)
